

“기억하기 싫은 학살자”... 동상 등 프랑코 기념물 철거

‘역사 기억법’에 지자체가 독재자 흔적 지울 법적 근거 규정 상무대 ‘전두환 범종’ 등 기념물 그대로 둔 한국과 큰 차이



국내외 과거사 정리로 본 5·18의 과제

<11> 프랑코 흔적 지우기

스페인 = 글 김용희·사진 김진수 기자

광주에서는 ‘상무대 호국의 종’ (일명 전두환 범종) 처리를 놓고 존재가 처음 알려진 2003년 이후 15년이 흐른 현재까지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범종은 전 전 대통령인 5·18 민주화운동 이 후인 1981년 광주를 방문할 당시 상무대 내 군 법당 인 법사(현 무각사)에 기증한 것이다.

이 범종의 정확한 명칭은 ‘상무대 호국의 종’이지만, 세로로 ‘대통령 전두환 각하’가 새겨져 있어 ‘전두환 범종’으로 불리고 있다.

5월단체는 학살자의 이름이 새겨진 범종이라며 파종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 범종은 장성 상무대 내 무각사로 옮겨졌다.

광주시와 5월 단체는 현재 전두환 범종을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5·18과 관련이 있는 만큼 직접 관리하며 교육, 전시자료로 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교계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다. 범종은 불교 성물인 만큼 정치적인 시각을 배제하고 ‘부처님의 목소리’를 뜻하는 원래의 의미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5·18규모역(광주시 북구 망월동) 입구 바닥에는 ‘전두환 대통령 각하 내외분 민박 마을’이 새겨진 비석이 박혀 있다.

지난 1982년 3월10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담양을 방문했을 때 목았던 민박집에 세워진 비석이다. 광주-전남민주동맹회 회원들이 1989년 1월13일 비석을 통째로 뽑아낸 뒤 5월 희생자 영령의 한을 조금이나마 달래보자는 의미를 담아 규모역 참배객이 밟고 지날수 있도록 바닥에 박아냈다.

또 지난 5월17일 경기도 포천군에서는 진보성향 시민단체 회원들이 축석고개 입구에 있는 ‘호국로(護國路) 기념비’ (높이 5m)를 흰천으로 덮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1987년 세워진 이 비석에 한문으로 쓰여진 ‘호국로’는 전 전 대통령의 친필 글씨다. 참가자들은 비석 앞에는 ‘학살자 전두환 죄악 증거비’라고 적힌 현수막을 달고, 비석을 당장 철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과는 다르게 스페인에서는 40여년 전부터 프랑코 전 총리의 흔적 제거 작업이 점진적으로 이뤄

지고 있다. 최근에는 ‘전몰자의 계곡’에서 프랑코의 유해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일부 보수 정당과 유족의 반발이 있지만 스페인 국민들 대부분은 프랑코 흔적 지우기 작업에 동의하고 있다.

지난 6일 방문한 스페인 마드리드의 오리엔테 광장(Plaza de Oriente)은 주말 오후 여유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아프리카 등 제3세계 작가들은 캔버스를 펼쳐놓고 저마다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고 하얀 전통옷을 곁에 차려 입은 중남미 무희들은 곳곳에서 공연을 펼치며 흥겨움을 더하고 있었다.

오리엔테 광장은 마드리드왕궁과 길 하나를 두고 마주보고 있으며 왕립극장, 박물관, 호텔 등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광장 중심에는 펠리페 4세(1621~1665 재위)의 기마상과 분수가 있고 그의 역대 스페인 왕들의 조각상이 줄지어 늘어선 것이다.

이곳은 프랑코 전 총리가 생전 연설장소로 자주 사용하던 장소다. 프랑코는 왕궁과 광장에 사람들을 불러모아 선동을 하기도 했고 반대로 시위대들이 모여 독재에 항거했던 곳이다.

정치적 의미가 깊은 곳이지만 프랑코가 세상을 떠난 지 40여년이 흐른 지금,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스페인 곳곳에서 오리엔테 광장과 같이 프랑코의 자취가 남아있는 곳이 많지만, 정부에서 흔적 지우기에 나서면서 거의 모든 기념비 등이 철거됐다.

쿠데타를 통해 1936년 10월 총통에 취임하며 정권을 잡은 프랑코는 모든 독재자들이 그렇듯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작업을 했다. 작업은 그가 세상을 떠난 1975년까지 40여년간 계속됐다.

이 기간 수도 마드리드에만 238개의 프랑코 기념물이 건립됐다. 1년마다 평균 6개씩 만든 것이다.

1937년 10월 왕궁과 맞닿아 있는 살라망카 마요르광장에 흉상을 세운 데 이어 1942년 교육부 산하 ‘라미로 데 마에스투연구소’ 입구에, 1948년 육군 사관학교 내에 기마상 등을 세웠다.

가장 대표적인 기념물은 ‘전몰자 계곡’이다. 1940년 4월1일 내전 승전 1주년을 기념해 프랑코가 직접 감독했다. 공사는 1942년에 시작해 1959년 4월 1일에 끝났다. 전쟁포로와 정치범 등 노동자 2만여명이 동원됐다. 계곡 위에는 높이 150미터와 무게 20만 톤의 거대한 십자가도 세워졌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십자가다. 또 거니나 지역에 자신이나 지인의 이름을 담기 시작했다.

세비아시의 ‘비아프랑코 텔 과달키비르’, 살라망카의 ‘아게다 텔 카우디오’, 카세레스의 ‘알발라 텔 카우디오’ 등이다. ‘카우디오’(Caudillo)는 총통이란 말로 프랑코를 지칭하는 용어다.

그 외에도 바이올리니스트 ‘킨타니아 데 오네시오’, 소리아의 ‘산 레오나르도’ 등 내전 때 자신의 함께 싸운 장군들의 이름을 넣는 경우도 많았다.

열정적으로 자신을 기념하는 작업을 했지만 프랑



오리엔테 광장에서 연설하는 독재자 프랑코



2005년 3월17일 새벽, 마드리드시에 남아 있던 독재자 프랑코 장군의 마지막 동상이 철거됐다.

코 사후 정세는 급변했다.

1979년 4월 3일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동상과 거리 명칭, 기념물 등을 처리할 권한이 지방 정부에 부여됐다.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세비야 등 주요 도시의 단체장이 진보성향으로 교체됐으며, 이후 거리 명칭을 개정하거나 기념물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프랑코가 태어난 페롤시는 지난 2002년 야외에 서 있던 프랑코 기마동상을 박물관 내부로 옮기기도 했다.

급기야 2007년 제정된 ‘역사기억법’에는 프랑코 정권의 기념조형물은 철거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다. 국민들이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인물의 동상을 바라보기 싫다는 이유였다.

지난 2016년 마드리드시는 프랑코 기념물을 기습철거했다. 시는 “독재정권과 관련 있는 기념물이기 때문에 철거해야 한다”며 “기념물이 시 소유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우파들의 반발도 거셌다. 국민당 시의원 등은 해당 기념물은 프랑코 총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불법 철거라고 맞섰다.

이 같은 스페인의 청산 작업에 대해 광주의 한 5·18연구자는 “스페인의 과거사 청산은 미흡한 점이 있지만 독재자의 흔적을 지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해 놓은 점은 우리나라에서도 참고 해야한다”고 말했다.

/ kimyh@kwangju.co.kr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왕궁 인근에 자리한 오리엔테 광장.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 전 총리가 사람들을 불러모아 선동하던 곳으로 스페인 우파와 좌파 모두에게 상징적인 공간이다.

풍수 사주 > 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

풍수와 사주(명리)를 한번에~

구슬이 세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개강 (초급 및 중급)

- 일 시 : 2018. 10. 30(화) 오후7시
-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2층)
- 수강료 : 풍수 + 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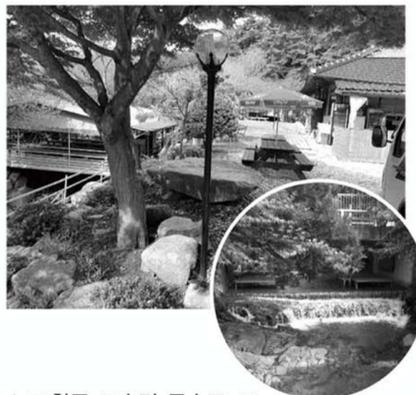
- 일 시 : 2018. 10. 23(화) 오후7시
-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 및 수목장 수액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상어,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펜션·가든 부지 매매



- ▶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 ▶ 대지 및 전답 4,000㎡(전평 정남향)
- ▶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 ▶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 ▶ 장성 편백숲 5분거리
- ▶ 문수사 단풍숲 2분거리

010-3768-0615
010-3799-3830

주인
직매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펜션·전원주택지

- 완도 약산면 바다인접 주택 대지 607㎡ 주택 70㎡ 1억천
- 장성 삼계면 죽림지 1636㎡ 백일홍 꾸지뽕나무 300주 4800만원
- 곡성 삼기면 청계리 681㎡ 광주서 30분내 4900만원
- 보성 문덕면 죽산리 대원사입구 5981㎡ 교환가능 7억3천

주택·원룸·아파트

- 아파트 서구 농성동 제일파크 14층 105㎡ 깨끗함, 리모델링완료 1억7천
- 농성초건너편 월산동 소방도점 대지 129㎡ 주택 66㎡ 은행5천.1억3천
- 월산동 농성초 건너편 소방도점 대지 149㎡ 2층주택 115㎡ 1억3천
- 서구 봉촌동 2층 주택 땅 105㎡ 새 주택 118㎡ 온천저수지부근 2억7천

투자·매도·교환

- 소태동 대지 261㎡ 주택 78㎡ 조용한 생활 적합 1억9천
- 담양 월산면 가든 땅 1658㎡ 상가주택과 교환원 6억2천
- 강진 신전면 태양광 적합지 30259㎡ 주택있음 6억5천
- 남평읍 평산리 답-전 8461㎡ 공시지가 2억천 투자에 양호 8억2천
- 광산구 대산동 잠종지 등 1554㎡ 창고 등 다용도적합 3억7천
- 월산동 양면도로점 주거지 873㎡ 창고와 사무실 11억
- 무안 해제면 상인지 1036㎡ 은행 2억4천 신고 3억5천 매도 3억
- 동구 용산동 대지 등 2449㎡ 다세대-빌라-사할 등 적합 10억 천
- 충장로5가 버스도점 상업지 494㎡ 생활주택 사육적합 7억7천
- 유등 소방도 상업지 331㎡ 상가·원룸·빌라 적합 4억7천

상가건물

- 양산동 대지 231㎡ 4층 안집과 원룸·투룸 497㎡ 교환가능 6억7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 화정동 대흥아파트 단지 병원적합 땅 258㎡ 5층 새건물 매 34억
- 농성초부근 2차선접 상가주택 땅 172㎡ 건평 279㎡ 4억5천
- 순천만 대대동 편성 땅 332㎡ 객실8, 관리실, 은행3억 영업적합 3억천
- 산수오거리 부근 땅 494㎡ 건평 1996㎡ 병의원적합 20억
- 양림동 땅 274㎡ 건물 751㎡ 요양병원할 건물과 교환가 16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한마음 공인중개사

- 광산구 송정동 아파트상기2층 34평형(학원적합) 매매가 7천만원
- 동구 계림동 빌라 35평형 5층4층 현임대중 전세8000만원 포함 19년1월만료 매매가1억3천만원
- 남구 백운동 2층상가주택 99㎡ 보증금 3천만원 월40만원 매매가 1억8천만원
- 북구 북동 4층상가주택 대지 98㎡ 보증금1300만 월85만원 안집제의 매가 3억7천만원
- 남구 월산동 3층상가주택 230㎡ 보증금 1억2천만원 월85만원 매매가 4억5천만원
- 동구 산수동 4층상가주택 대지 132㎡ 보증금3300만 월155만원 안집제의 매매가 5억5천만원
- 동구 두암동 3층상가건물 240㎡ 보증금 3천만원 월220만원 매매가 6억원
- 북구 신안동 5층상가건물 146㎡ 보증금 5천만원 월282만원 매매가 7억원
- 북구 운암동 4층상가주택 145㎡ 보7천만원 월260만원 매매가 8억원
- 북구 오치동 3층상가주택 270㎡ 보증금 5천만원 월310만원 매매가 8억5천만원
- 남구 백운동 3층상가주택 210㎡ 보증금 1억원 월500만원 매매가 14억원
- 북구 신안동 대지 520㎡ 매매가 14억5천만원
- 남구 주월동 5층상가주택 대지500㎡ 보증금2억 월920만원 안집제의 매매가28억원
- 북구 운암동 대지2600㎡ 보9천만원 월500만원 매매가 44억원
- 해남 사할및남골묘 1300기 토지3만6천㎡ 매매가 8억5천만원
- 화순 도곡면천내 무인텔 대지 3000㎡ 건물4층 3동 객실37개 월매출 6천~7천만원(장부공개) 용자 28억원포함 매매가35억원

010-2314-8567 (계림오거리)